

金滄江과 黃梅泉 그 停雲의 詩

황수정*

<차 례>

1. 머리말
2. 滄江과 梅泉의 만남과 소통의 기저
3. 萬里 밖 停雲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
4. 벗에 대한 추억과 추모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滄江 金澤榮(1850 ~ 1927)과 梅泉 黃玆(1855 ~ 1910)의 시적 교류에 대한 분석이다. 김창강과 황매천, 두 사람 간 停雲의 시를 고찰한 것이다. 停雲은 멀리 있는 친한 벗을 생각할 때 쓰는 말이다. 격변의 시기에 한문학의 전통을 유지하며 그 빛을 발하게 했던 두 인물의 시적 교류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일찍이 촉망받았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았다고는 볼 수 없다. 단지 시대적인 고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부단히 찾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감을 시적 교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정감과 애환을 읽을 수 있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기저와 위기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양상의 저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창강과 매천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 할 수 있었다.

첫째, 두 사람의 문학적 소통은 격려와 신뢰가 기반이 되었다. 창강과 매천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들은 젊은 날 입신에 대한 기

* 北京語言大

대와 실망을 겪은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여준 정신적 기저에는 난세를 극복하고 적응해야 할 응전력이 요구되었다. 지식인으로서의 당대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학적 어울림은 시대를 함께 공감하며 문학적 기량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은 문학에 대한 격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창강과 매천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萬里 밖 정운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창강은 격변기 속에서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매천은 집안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였다. 매천은 벗에 대한 그리움 속에 한없는 동경을 그려냈다. 문학적 이상을 펼치기 위한 창강의 결단을 높이 산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안녕과 변화에 대한 추구를 넘어선 시대 적응능력에 대한 찬탄이기도 했다. 그 밑바탕에는 창강의 문학적 능력과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담고 있다. 창강은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움의 공간을 벗에게 보내는 시에 담아냈다. 그래서 이국에서의 고뇌와 그리움을 벗인 매천을 통해 위로받고자 한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시에는 시국의 혼란을 바탕으로 한 고뇌와 그리움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벗에 대한 추억과 추모의 정서가 표출되었다. 창강과 매천에게 있어 벗에 대한 추억은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미래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진정한 의미를 반추할 수 있었다. 지식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면서 극복해야 했던 과제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이 표출되었다. 이로써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시대적 대응양상의 저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매천이 추억한 창강의 모습은 벗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벗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로 이어졌다. 창강은 매천의 애석한 죽음에 대한 통절한 슬픔과 지음을 잃은 고통을 표출하였다. 이는 고국에 대한 애끓는 절망의 토로인 것이다.

핵심어 : 金滄江, 黃梅泉, 소통, 신뢰, 중국 망명, 停雲

1. 머리말

사람 사이에 만남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벗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벗과의 만남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나누는 교류, 벗의 능력을 알아주는 만남 등이다. 이를 忘年之交, 知音 등으로 부른다. 중국 唐나라 때 杜甫가 李白을 생각하면서 그의 안위를 염려한 시가 있다. 33살의 두보는 44살의 이백을 처음 만났고 2년간의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였다. 즉 두보는 「夢李白」에서 “죽어 이별함은 이미 목이 메이고, 살아 이별함은 언제나 슬프고 슬프네. 강남은 풍토병 많은 곳인데, 귀양 간 나그네는 소식이 없네.”¹⁾라고 하였다. 이백의 귀양소식을 듣고 쓴 것이다. 瘴氣가 만연한 땅으로 쫓겨난 이백의 신변을 염려하였다. 또한 벗과의 생이별에 대한 통절함을 그려냈다. 그보다 앞 시기인 晉代 陶淵明은 그의 작품 「停雲」을 통해 잔뜩 어두운 머문 구름과 역수같은 비에 온 누리가 어둡고 평탄하던 길은 막혀버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용히 동창에 기대어 홀로 봄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다. 이럴 때 좋은 벗이 아득히 멀리 있어서 머리 굽으면서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을 드러냈다.²⁾ 이는 벗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까지 하면서 그리워한 것이다. 이처럼 停雲은 멀리 있는 벗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 쓰는 말이다.

滄江 金澤榮(1850~1927)과 梅泉 黃玹(1855~1910)의 만남도 그에 못지않은 만남의 감격과 이별 및 그리움이 서려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의 만남은 학문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돈독히 하였다. 후에 사귀를 더하면서 각자의 작품에 대한 인정과 삶에 대한 신뢰로

1) “死別已吞聲 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 逐客無消息.” (杜甫, 「夢李白」 其一 중, 『唐詩三百首』, 中華書局, 2008, 17면)

2) “靄靄停雲 濛濛時雨 八表同昏 平路伊阻 靜寄東軒 春醪獨撫 良朋悠邈 搔首延佇.” (陶淵明, 「停雲」, 『陶淵明集全譯』, 貴州人民出版社, 2008, 1~3면)

평생 知音이 되었다.³⁾ 두 사람은 모두 부친의 아낌없는 배려와 기대를 받아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⁴⁾ 그러나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벼슬로의 출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창강은 집안이 개성상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42세가 돼서야 司馬試에 급제할 수 있었다. 이는 17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얻어진 결과이다. 매천의 경우는 지방의 한미한 가문이라는 이유로 初試 初場에서 1등에 올랐다가 會試에서 罷榜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매천은 낙향하여 지리산에 칩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교류는 한문학사에 있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창강과 매천의 시적 교류에 대한 분석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 동안 창강과 매천에 대한 연구는 각각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⁵⁾

3)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70~80면 참조.

4) “七舉成均竟不諧 百年天下怨空埋 魂遊定在乾清殿 親見孱孫謝白牌.” (김택영, 「曾祖惺齋公墓」, 『김택영전집』 1, 218면) 창강의 증조부 惺齋公은 평생 과업에 매달렸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부친 益福은 창강이 환로에 진출하여 성재공의 한을 풀어줄 것을 고대하였다. 이에 아낌없이 서적구입과 선생초빙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였다. 매천 집안 또한 彫村 黃喜(1363~1452) 정승, 임진왜란 때 충청병사로 무공을 세우고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黃進, 병자호란 때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큰 전과를 거둔 塘村 黃暉 이후 관직에 오른 이가 없었다. 그의 조부 櫟은 그가 이루어놓은 재산으로 증손인 매천의 입신양명에 모든 기대를 걸었었다. 따라서 매천의 부친 시묵은 아들인 매천의 학업을 위해 전 재산을 아끼지 않고 그의 교육에 투자하였다. (이의강, 「김택영의 중국망명 원인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22집, 동방한문학회, 2002, 76면: 황수정, 「매천황현 전기연구」, 순천대 석사논문, 2002, 10~12면 참조)

5) 창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광미선, 「창강 김택영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망명 시기 한시에 나타난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165~201면: 광미선, 「김택영의 한시를 통해 본 망명 전후 의식세계의 변모」,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227~260면: 김동훈, 「김택영, 근대적 각성과 중국문인들의 영향」,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99~121면: 이의강, 앞의 논문, 71~95면: 鄭載喆, 「滄江詩에 있어서의 現實感覺과 憂國詩의 性格」, 『한문학논집』 6,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8, 151~170면: 호광수, 「창강 김택영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2, 중국인문학회, 2006, 213~248면.

매천에 대한 연구는 이병기, 『매천시연구』, 보고서, 1995: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尹景喜, 「황현 시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정환, 「매천시과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등에서 많은 후속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시적 교류에 대한 의미는 잘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창강과 매천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 할 수 있다. 이는 두 사람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기저와 위기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양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의 어울림이 빚어낸 정감표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문학 교류는 후대 한문학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격변기 지식인의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적 대응양상을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滄江과 梅泉의 만남과 소통의 기저

창강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초시에 합격하였다. 24세에는 寧齋 李建昌(1852~1898)으로부터 백년 이래 최고의 작가라는 극찬을 들었다. 31세까지 성균회시에 계속 응시하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조선 사회는 상인을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조상의 묘지에 상인 집안 내력을 기록하지 않았다⁶⁾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창강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후에 김홍집 내각에 발탁되어 문헌 관련 일을 하면서 망명 후 역사서 저술 및 문집편찬 등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강은 매천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대저 문자의 도란 이치가 있고 기운이 있고 신기로우미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얻으면 맑은 재사요, 문장가이다. 오늘날 문장을 말한다면 추금과 매천의 詩, 영재와 호산의 文이 모두 이 세 가지를 터득한 것이다.⁷⁾

6) “余自少時考觀於吾開城邱墓誌文 無有謂其父若祖曰賈者.” (김택영, 「王母金淑夫人墓誌銘」, 『김택영전집』 2, 367면)

이는 창강 문학관의 일면인 동시에 당대를 풍미하던 벗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매천에 대해서는 시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위치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당대 인식과 시적 평가, 그리고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창강이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던 중 素琴 王師天의 시를 알게 된다.⁸⁾ 여기서 소금의 소개로 매천의 시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매천은 추금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였을 때였다. 그 뒤 창강은 1880년 봄에 매천을 만났다. 이때 매천은 영재를 만나러 상경했다가 대신 丹農 李建初를 만나본 후, 송악에 있었던 창강을 찾아갔던 것이다.⁹⁾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문학적 소통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두 사람 간의 문학적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 어울림의 내면에는 두 사람의 감성과 고뇌,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기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창강과 매천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山中有瀑布 산중에 폭포가 있으니
 奇壯不可當 기이하고 장엄함을 가히 당할 수 없네.
 想君一枝筆 생각건대 그대는 한 자루 붓으로
 青天交電光 푸른 하늘에 번개 빛과 사귀리라.
 김택영, 「送黃梅泉雲卿玆遊天磨山」(『김택영전집』 1, 160면)

이 시는 「送黃梅泉雲卿玆遊天磨山」三首 중에서 두 번째 수에 해당한다. 1880년 庚辰年의 작품이다. 창강이 31세 되던 해, 매천과의 만남을 표현한 것이다. 개성으로 창강을 찾아가서 만남을 이룬 매천은 그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는 창강이 이전에 이미 매천 시를 읽은 경험이 있었기

7) “夫文字之道 有理 有氣 有神 其得此三者 清才也 文章也 以近日言之 秋琴 梅泉之詩 寧齋 壺山之文 皆得此三者矣.” (김택영, 「黃瑗書」, 『문목취편』 상권, 미래문화사, 1985, 156면)

8) 이병기, 『매천시연구』, 보고사, 1995, 46면 참조.

9) 황수정, 앞의 논문, 73면.

에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강은 1878년인 戊寅年에 이미 지리산 일대를 여행했었다. 여기서 창강은 “두류산 빼어난 빛은 삼천 겹이요, 묘하게 두 봉우리를 골라서 한 마을이 되었네(頭流秀色三千疊 妙選雙峯作一村).”¹⁰⁾라고 하며 구례 유이산의 운조루를 그린 바 있다. 창강은 이곳은 서울의 흥진이 더럽힐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려내기도 하였다. 또한 지리산 쌍계사에 대하여 읊은 바도 있는데, “절은 오래되어 위기가 장하고 비석은 닳아져서 사적이 그윽하네(寺古威儀盛 碑殘事蹟幽).”¹¹⁾라고 읊었다. 매천과의 만남 전에 이미 창강은 매천의 고장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기구에서는 시의 배경을 그리고 있다. 산중의 폭포를 제시함으로써 산세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 이는 쉽지 않았던 여정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반면에 힘든 등정 중에 만나는 시원한 물줄기는 막혔던 심중을 트이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시의 배경을 통해 매천과의 만남의 의미가 표출되었다. 이어지는 승구를 보면, 폭포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폭포전체의 규모와 장대함이 그려졌다. 기이하고 장엄한 모습이 뛰어남을 드러냈다. 이는 폭포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청각적 묘사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폭포의 전체규모를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천마산에 오르면서 만난 폭포는 매천의 필력 표출로 전환된다. 즉 전구에서 창강은 매천이 세상에 응하는 방식을 그려냈다.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기저는 오직 한 가지 붓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오직 글로써 세상에 맞서고 살아낸 매천의 삶을 예감한 것 같다. 결구에서 이러한 매천의 필력을 푸른 하늘에 번갯불과 사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번뜩이는 매천의 문장력을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매천에 대한 인식은 다음 수에서 만족도로 표출하고 있다. 즉 “옛날에 내가 놀기를 좋아하여 산을 만나면 기운이 반드시 배나 솟았네(昔者余好遊 逢山氣必倍).”라고 하였다. 이로써 문학적으로

10) 김택영, 「求禮同柳二山濟陽限韻」, 『김택영전집』 1, 137면.

11) 김택영, 「智異山雙溪寺」, 『김택영전집』 1, 138면.

로 어울릴 수 있는 벗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해 창강은 「酬黃梅泉斷髮嶺見憶之作三首」¹²⁾를 쓴 바 있다. 매천이 처음 경사에 진출하여 얻게 되는 신망을 그려냈다. 여기에는 “추금노인 찬탄을 일으켜서 영재학사가 두량을 공평히 했네(秋琴老人起讚歎 寧齋學士平斗量).”라고 하였다. 당대 명망 있는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창강은 “새 시를 나에게 보낸 것이 더욱 기묘하니, 읽어보니 풍향을 맡아본 것과 방불하네(新詩投我更奇妙 讀之髣髴聞楓香).”라고 하였다. 이는 매천이 돌아간 후에도 창강에게 작품을 보내면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로써 창강은 매천에 대하여 시대를 함께 공감하며 문학적 기량을 나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 작품은 매천이 창강과 호산 박문호와 함께 북한산성에 올랐던 경험을 그린 것이다.

漢陽城北百盤盤	한양 성 북쪽을 백번이나 돌고 도니
千疊雄山一寶關	천 겹 웅장한 산에 구멍만한 관문이 있네.
積氣龍騰空翠外	쌓인 기운은 빈산 푸른 빛 밖에 용처럼 날고
窮途鳥絕白雲間	길 다한 곳엔 흰 구름 사이로 새도 날지 않네.
如今鎖鑰將誰待	지금은 자물쇠로 잠겼으니 장차 누구를 기다리나
有此巉巖不可攀	이 험준한 절벽은 가히 오를 수 없네.
斗酒春風客無事	한 말 술 봄바람에 나그네는 일이 없으니
重興寺下聽潺湲	중흥사 아래에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어보네.

황현, 「與朴壺山金滄江澤榮游北漢山城」(『황현전집』 上, 44~45면)

이 작품은 1882년 壬午年 매천의 나이 28세 때의 시이다. 북한산행에 대한 정감을 그리고 있다. 험준한 북한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렵게 오르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경치를 그리고 있다.¹⁴⁾ 그 높고 깊음에 탄복하면서도 다하지 못한 산행에 대한 아쉬움을 술과 봄바람으로 풀어내고

12) 김택영, 「酬黃梅泉斷髮嶺見憶之作三首」, 『김택영전집』 1, 161면.

13) 황수정, 앞의 논문, 73~74면 참조.

14) 황수정, 「19세기 말 ~ 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39면 참조.

있다. 산에서 느껴지는 신령스런 기운과 산의 높은 모습에 대한 묘사는 시에 있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무형의 존재를 유형의 모습으로 시각화시키면서 사실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는 북한산의 신령한 기운에 매료된 작자의 심중일 것이다. 또한 새들의 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산의 험난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로 인하여 산의 위용과 신비감을 한층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천은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정상까지 오르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매천에게 열리지 않은 산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如今鎖鑰將誰待’라고 하여 힘겹게 다가갔지만, 끝내 열지 못한 서운함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산행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실제로 이즈음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심중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해에 지은 매천의 시 「成均會試見罷作」¹⁵⁾을 보면, “한가로이 기쁨과 슬픔을 어찌 감히 말하리오 여관의 꽃은 한창이고 술은 잔에 가득하네(悠悠權威豈堪論 旅館花深酒滿盆).”라고 하였다. 이는 성균 회시에서 罷榜을 당하고 지은 것으로 덧없이 엇갈린 희비에 마음을 추스르고자 하는 심정을 담았다.

매천은 이때의 등정을 ‘有此巉巖不可攀’이라고 하며 이루지 못하였음을 그려냈다. 자신이 끝내 열지 못한 관문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로써 한 말 술과 봄바람에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중흥사 아래에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했을 것이다. 이는 시속에 여운을 담은 것으로 시간의 지속성을 읽을 수 있다. 미래에 이어질 지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숙고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창강이 함께 산행을 하고 쓴 작품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聞君不利南宮試 그대가 남궁의 시험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15) 황현, 「成均會試見罷作」, 『황현전집』 上, 362면.

携我同來北漢關 나와 손잡고 북한산 관문에 왔네.
可笑主司無計策 우습다. 시험관이 계책이 없어서
盡拋奇貨向空山 기화를 모두 던져 공산으로 가게 하네.
김택영, 「同壺山梅泉遊北漢山城」(『김택영전집』 1, 172면)

이 작품을 보면, 당시 함께 북한산행을 했던 동기를 알 수 있다. 임오년의 성균회시를 치르고 난 후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을 느끼는 벗을 위로 차 행했던 산행이었다. 낙담하고 실망하였을 벗의 마음을 풀게 하여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시에는 “이때 두 사람이 모두 성균회시에 낙방을 당하였다.”¹⁶⁾라는 주를 넣어서 등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携我同來北漢關’이라 하여 창강 자신의 심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곁에서 지켜주고 봐주는 벗이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매천이 경사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창강을 비롯한 영재, 추금 등에게서 인정받았던 바가 큰 힘이었을 것이다. 비록 시험의 관문에는 들지 못하였더라도 가까이서 그들은 서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강 또한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 인하여 젊은 시절 번번이 과거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이에 매천과 호산의 상황에 동병상련의 심정을 담았다. 또한 이때 세 사람의 등정에 대하여도 창강은 작시하였다. 「同壺山登白雲臺絕頂」¹⁷⁾이라 하여 호산과 함께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올랐음을 그려낸 것이다. 이 시 주에는 “매천은 험한 것을 꺼려서 능히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梅泉憚險不能上).”라고 기록하고 있다.

창강은 전구에서 당시 시험관의 능력을 질타하고 있다. 시험관이 제대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可笑主司無計策’의 행간에 흐르는 심중은 당시 권력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서려있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과거제의 부패함 등으로 인한 벼슬등용 절차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때였다. 창강은 인재를 바로보지 못하고 놓친 것은 ‘奇貨’

16) “時二君 俱見屈於成均會試.”

17) 김택영, 「同壺山登白雲臺絕頂」, 『김택영전집』 1, 172~173면.

를 버린 것과 같다고 보았다. ‘奇貨可居’라는 말이 있는데, 진기한 물건을 사두었다가 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奇貨’란 뜻밖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말한다. 이는 매천이나 호산과 같은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의 역량을 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자질이 묻히게 되고 허망하게 빈산을 찾게 하였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처럼 젊은 날 창강과 매천은 입신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겪었다. 다만 학문에 대한 자부심은 남 못지않았다.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은 문학에 대한 격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창강과 매천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3. 萬里 밖 停雲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

창강은 격변기 속에서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의 망명은 유교적 절의와 자신의 역량 발휘 등의 측면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⁸⁾ 창강은 매천에게 함께 갈 것을 청하였던 바가 있다. 그러나 매천의 집안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였다.¹⁹⁾ 매천은 창강의 권유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창강과 진정 헤어지게 될 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이에 창강이 떠나고 난 후 섭섭함과 함께 창강의 결단력을 칭송한 바를 적고 있다.

18) 정재철은 그의 논문에서 창강의 중국행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창강이 겪었던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일제의 침략행동이 본격화되던 국가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주된 원인은 독립이나 계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夷의 침입에 대한 華로의 복귀라는 儒教的 節義에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의 강은 창강이 망명한 이유를 평생 한문학자였던 창강으로서 근대 전환기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고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망국의 위기에서 자신이 동경하였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鄭載喆, 앞의 논문, 160면 참조: 이의강, 앞의 논문, 84~87면 참조)

19) “春暮得滄江 正月出書云 新年來頗有萬里之想 倘借天靈 得終老於蘇浙之間 則不猶愈於作島兒之奴耶 老兄聞此 亦當仙仙欲舉 但我輩俱羸弱人 辦此豈易易 余執書歎息 遂不告家人 潛辦資斧 擬待秋涼北上 六月初忽哭宗家從侄 侄本孑然無近親 其孤寡視余爲命 由是行計自輟。” (황현, 「聞金滄江去國作」, 『황현전집』 上, 305면)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萬里에 물결을 치고 가는 것이 또한 운명이 있는 것인가.” 하였다. 그러나 창강이 갈 줄은 깊이 믿질 못했다. 해가 장차 다 하자 어떤 사람이 경사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말하기를, “창강과 더불어 왕래한 것이 거의 반년이 되어 가는데, 일찍이 보지 못하길 열흘이 되어서 하루는 가 보았더니, 집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니, “이미 온 가족이 상해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10월의 변고가 일어났다. 거의 하루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기미를 알기를 잘도 알고 떠났다. 나로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이른바 흙덩이 속에 벌레와 노란 고니와 같다. 하루는 눈이 와서 초연히 문을 닫고 장가 1편을 지어서 향을 피우고 서쪽을 향해 읽어서 萬里 밖에 정운의 생각을 나타냈다.²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별을 안게 된 것이다. 젊은 시절 함께 문학과 학문에 대해 경외하고 존중했으며, 함께 앞날에 대한 고뇌를 나눴다. 그러나 시대전환기를 맞이하고,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문학자, 문인으로서 본인들 또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새로운 학문의 대두와 시대 흐름, 그러면서 정통 한문학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는 때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당시 한문학인이 느꼈던 위기의식은 상당했으리라 본다. 본장에서는 그 중심에 있었던 창강과 매천의 위기의식의 깊이와 그 근본에 대한 성찰을 돌아보고자 한다.

……前略……

雲帆滅沒映斗牛	구름 속 돛배는 사라지며 두우성을 비추고
行色翩然妻女共	행색 갖춰 훌쩍 아내와 딸과 함께 했네.
不是尋眞蓬萊島	진선 찾아 봉래도로 간 것도 아니고
不是避世桃源洞	세상 피해 도원동으로 간 것도 아니네.
行年六十隻影單	나이 육십에 외로운 그림자가 외로우니

20) “喟然歎曰 萬里破浪亦有命乎 然於滄江之行則未之深信 歲將窮 有人自京師來者 爲余言曰與滄江 往還殆半載 嘗不見旬日 一日往則家易主 詢之 已盡家向上海去矣 未幾 十月之變作 殆不俟終日 知幾其神者乎 以吾視之 眞所謂壤蟲之於黃鵠也 一日雪作 峭然掩戶 綴長歌一篇 焚香西向而讀之 以見萬里外停雲之思.” (황현, 같은 글, 305~306면)

亦非區區覬遺種	또한 구구히 종자를 남기기를 바란 것도 아니네.
生當痛哭西臺秋	살아서는 마땅히 서대의 가을을 통곡할 것이요
死當埋骨要離塚	죽어서는 마땅히 요리의 무덤에 뼈를 묻으리라.
上海東南天盡頭	상해의 동남 하늘이 다한 곳에
山川不殊漢唐宋	산천은 한·당·송때와 달라지지 않았으리.
黃浦水灩烟鷗舞	황포의 물은 넘실대고 연기 속 갈매기는 춤을 추고
玄墓花堆香雪擁	현묘의 꽃 무더기 속에 향기로운 눈이 덮였네.
扁舟短棹作寓公	쪽배 짧은 노로 우공이 되었으니
到處選勝吟肩聳	가는 곳마다 좋은 데를 골라 시 읊는 어깨가 으쓱하리라.
江漢南紀古猶今	강한의 남쪽지방은 옛날과 같을 것이니
地靈尙應英髦衆	신령한 땅으로 아직도 응당 영재가 많으리라.
酒酣落筆賦江南	술이 취하면 붓을 내려 강남을 읊어
見我東國文章鳳	우리 동국 문장의 으뜸을 보여주리라.

황현, 「聞金滄江去國作」(『황현전집』 上, 307면)

이 시는 창강이 나라를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이별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매천이 창강을 생각하면서 그의 안녕과 무사를 빌고 있다. 또한 벗의 능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려냈다. 이는 한 개인으로서의 성취를 바라는 것보다는 당시 나라를 대표할 만한 벗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다.²¹⁾ 후반부에 속하는 이 시에서 매천은 벗의 망명의 원인을 그리면서 그가 이를 성취를 빌고 있다. 즉 전반부는 중국행에 대한 결단을 칭송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장래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매천은 창강이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모습과 함께 그러한 벗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다. 창강이 젊은 시절부터 바라던 중국행이었으나, 그들의 앞길이 마냥 편안할 것인지 염려하는 바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기에 보내는 사람으로서는 안심이 되는 바였을 것이다. 중국행에 대한 창강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는 다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21) 황수정, 「황매천의 중국 절의지사에 대한 지향」, 『한국언어문학』 71집, 한국언어학회, 2009, 275~277면 참조.

처음에는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으셨기 때문에 힘써 벼슬에 나아갔고, 여러 재앙과 변고를 만나 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처자식들에게 얽매어 하루하루 주저하며 머뭇거리다 드디어 오늘날의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기자 이래 3 천 년 간 중국을 의지하고 힘을 빌어 한 집안같이 여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 지금에 와서 잠시도 중국을 잊을 수 없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리오.²²⁾

이는 을사년에 창강이 망명하기 직전 중국의 장건²³⁾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차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족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결행하지 못했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 동안 집안사정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자신 또한 仕路에 쉽게 진출할 수 없었던 마음고생을 겪었다. 이에 자신의 학문적인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출구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창강의 문학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창강의 망명이 결행되었다. 창강은 중국으로 출발하면서 뱃전에서 자신의 심사를 재차 그렸다. 원하던 길을 떠나면서도 나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담고 있다.²⁴⁾ 결코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가벼운 길일 수 없는 가슴 답답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매천은 이 시에서 창강의 중국행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벗의 심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받게 될지

22) “始也以家貧親老 黽勉就祿 遭罹變亂 不能快法 及夫親沒 則又爲妻子所縛 一日二日 逡巡趨趨 遂以至於今日寒心之境焉 …… 敝邦自箕子以來 上下三千餘年之間 其於中州依倚籍賴 有如一家自 曾何如而今乃使之至於此境 …… 至今未嘗暫忘於中此生此世 夫復何幸 亦復何求.” (김택영, 「與張季直書」, 『김택영전집』 1, 415~416면)

23) 張謇: 장건형제는 임오군란 당시 종사관으로 조선에 왔을 때 김윤식을 통해서 창강의 시를 읽게 된다. 이후로 장건이 창강을 찾아가 시(「贈張薔菴季直謇」)를 받고, 선물을 하고 교류를 맺게 된 것이다. 창강이 장건을 처음 만났을 때 34세였다. 이 즈음은 창강 자신이 仕路에 진출하지 못하고 연이은 실패로 불우한 처지이기도 했다. (이의강, 앞의 논문, 84면 참조: 호광수, 앞의 논문, 216면 참조)

24) “東來殺氣肆陰奸 謀國何人濟此艱 落日浮雲千里色 幾回回首望三山.” 「九日發船作二首」 중 두 번째 수, 『김택영전집』 1, 250면.

모르는 지탄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혼자만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결코 도원동 같은 곳으로 숨어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드러냈다. 따라서 ‘亦非區區覬遺種’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遺種은 남은 종자라는 말로 遺民을 뜻한다. 즉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개인적인 피신처로서의 결행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개인적인 안녕보다는 창강의 학문적, 문학적인 이상을 펼치기 위한 길이였음을 그리고 있다. 이는 ‘生當痛哭西臺秋, 死當埋骨要離塚’이라고 창강을 대신하여 벗의 신의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매천은 창강의 망명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우의를 보여주고 있다. 벗이 당도한 곳에서 펼쳐질 선의의 경쟁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그곳에서의 작품 발현에서 응당 창강의 재주가 빛을 발할 것임을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 창강은 당대 저명한 중국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²⁵⁾ 또한 황포 물 넘실대는 이국의 땅에서 새로운 경험을 이어갈 벗의 삶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담았다.

이는 당대 지식인의 염원과 희망을 그려낸 것이다. 자신들이 한평생 바쳐온 문학의 삶에 맞닥뜨린 불안과 암담함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에 창강은 그 방편으로 망명을 택하여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서막에 벗의 낭만과 여유로움, 그리고 평안함이 함께 할 것을 염원하였다. 이처럼 매천은 고국을 떠난 벗에 대한 그리움 속에 믿음과 동경을 실었다.

이들은 이별한 후 서로 대면하면서 만나지는 못하였어도 작품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매천의 나이 53세에 쓴 「和滄江五絶却寄」²⁶⁾ 시에 대한 주이다. 아래 내용으로 봐서 비록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는 있어도 집안의 경사도

25) 광미선, 「창강 김택영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망명 시기 한시에 나타난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172~195면 참조.

26) 황현, 「和滄江五絶却寄」, 『황현전집』 上, 333~334면.

서로 나누면서 정을 돈독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쁨을 전하고 축하를 받으면서 두 사람만의 정감을 나누었던 것이다.

6월 중에 창강이 4월에 회수 가에서 보내 온 편지를 받아보았다. 그 편지 속에 근래에 지은 5수의 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세 번째는 洗兒에 관한 것이었다. 창강은 중년에 아들을 잃었는데 다른 아들이 없었다.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세 번째 얻은 아내와 어린 딸만 데리고 들어갔다. 금년 정월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편지에 아주 얼굴이 닮았다고 하니, 그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겠는가. 그를 위해서 차운하여 축하하노라.²⁷⁾

이렇게 소소한 정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자 했을 것이다. 매천은 여기서 “萬里 길 창공의 기러기 홀로 날아가니 천추의 양좌처럼 계획이 전부 어긋났네(萬里冥鴻獨自飛 千秋羊左計全非).”²⁸⁾라고 하였다. ‘冥鴻’은 높이 나는 기러기를 말하는 것으로 큰 뜻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창강을 가리키는 말이다. ‘羊左’는 전국시대 燕나라 사람으로 羊角哀와 左伯桃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두 사람은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으나, 영예를 함께 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벗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표현하였다. 당대 지식인들이 지녀야 했던 암울한 시대의식과 자신들의 운신의 폭에 대한 불안이 드러났다.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이다. 따라서 난세에 좋은 벗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고립감이 표출되었다. 매천은 일찍이 벼슬에 대한 욕망을 버렸으며, 그로 인해 명예에 대한 집착도 거둔 지 오래이다. 다만 자신의 문장과 학문에 대한 자부심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런 심정을 가까이서 교감할 수 없는 벗의 부재에 대한 답답한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²⁹⁾ 이는 매천의 고민만이 아니었다. 창강이 고국을 등지고 떠났던

27) “六月中 得滄江四月自淮上發書 書中錄近作五詩 其三屬洗兒 蓋滄江中歲喪明無他子 入中國時 但携其三娶婦及幼女以去 今年正月舉一丈夫子 書稱貌酷肖 幸孰甚焉 爲之次韻以賀之.” (황현, 「和滄江五絶却寄」, 『황현전집』 上, 333면)

28) 황현, 「和滄江五絶却寄」 중 첫 번째 수에서, 『황현전집』 上, 333면.

29) 이와 같은 정서는 그의 작품 「春間滄江東還馳書要見至秋余始入都則滄江已歸矣悵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로써 떠난 사람이 느껴야 했던 말로 다할 수 없었던 심사는 다음 시에 고스란히 비쳐진다.

頭流積翠落滄溟	두류산에 쌓인 푸르름 큰 바다에 떨어지니
萬里隨潮到我局	만리의 조수를 따라 우리 문 앞에 이르네.
暮境相依知幾日	말년에 서로 의지한 것이 며칠이나 될까
舊交都盡似飛星	옛날 사귀었던 사람은 모두 날아간 별과 같이 다하였네.
空山猿鶴盟逾密	빈산의 원학은 맹세가 더욱 긴밀해지고
匝域鯨鯢氣正腥	우리나라를 두른 고래들 정히 비린내 나네.
憶否孤歌招隱處	생각하는가 외로이 초혼의 노래 부르는 곳에
秋風叢桂已飄零	가을바람에 여러 개수나무 잎이 이미 떨어지고 있네.

김택영, 「寄黃梅泉」 3首 중 첫 번째 수(『김택영전집』 1, 288면)

이 시는 창강의 작품이다. 창강은 몸은 비록 나라 밖에 있으나, 가슴 깊숙한 곳에 잠재해 있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나이 50이 넘어서 겪게 된 새로운 환경과 낯선 이국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를 벗어 대한 애뜻함으로 형상화하였다. 수련에서는 벗이 살고 있는 고국에 펼쳐진 두류산, 즉 지리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리산의 울창한 산림과 빼어난 산 빛은 이미 창강의 뇌리에 벗과 함께 아로새겨져 있었다. 이는 벗에 대한 그리움을 고국에 대한 영상으로 살려 낸 것이다. 마음속에 가득 한 그리움의 공간을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현실의 공간 안에 마음속의 대상을 끌어 들여서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는 항상 벗을 생각했던 창강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조수처럼 벗이 살고 있는 공간을 자신의 문 앞에 이르게 한 것이다. 함련에서는 벗과 만

然有作」(『황현전집』 上, 352면)에서도 드러난다. 매천은 여기서 “한숨짓노니 창강을 따라 갈 수 없어서 쪽배가 하룻밤 사이에 나는 용을 탔네(太息滄江不可從 扁舟一夜躡飛龍).”라고 하며 창강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음을 장탄식한 바 있다. 그래서 마치 쪽배가 나는 용을 탄 듯이 빨리 돌아가 버린 창강에 대한 아쉬움을 실었다. 머나먼 뱃길에 오른 벗과 여전히 책상 앞에만 있는 자신을 돌아본 것이다. 이 시에서는 창강이 망명 후 3년여 만에 다시 고국을 찾아왔다가, 매천을 만나고자 연락을 취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났던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다. 서로 의지하며 급변하는 시세를 근심하였던 벗이 있었기에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홀로 떠나 간 이국의 땅에서 그리운 벗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급박한 시세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고수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에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벗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서로의 서정과 삶에 대한 교감을 작품으로 나누며 한 시대의 문학을 이끌었다. 매천을 비롯한 영재 이견창 등과의 교유는 당대 문학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바다. 여기에 창강의 망명은 또 한번의 변모를 위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당대 중국지식인들과의 교유는 창강에게 문학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속에서도 창강은 고국의 지식인들과 끊임없이 교유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매천과의 교감의 메시지도 그 중 하나였다. 창강은 이 시 마지막 수미련에서 “이 생애의 답답한 심정을 장차 누구와 말하리오 뜬 구름을 향하여 몇 마디 말을 보내네(此生壹鬱將誰語 好向浮雲數寄言).”라고 하였다. 멀리 있는 벗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위로받고자 한 것이다.

天涯濯足戲滄溟	하늘가에서 발을 씻고 바다 물결을 희롱할 제
幾樹梅花獨掩扃	몇 그루 매화 속에서 홀로 문을 닫고 있네.
回首辰韓悲點墨	진한으로 고개를 돌리면 한 점 먹 같아 슬프고
揚帆南斗耀文星	남두성에서 돛을 올려 문성이 빛나네.
袖盈吳越才人刺	소매에는 오월 재사들의 명함 가득하고
筆洗江淮戰地腥	붓으로는 강회 전쟁 땅의 비린내를 씻으리라.
坐送春風西渡去	앉아서 봄바람을 서쪽으로 건너보내고
枕邊惟有涕雙零	베개 가에는 오직 두 눈물이 떨어질 일만 있네.

황현, 「正月二十三日得滄江穀日見寄詩和之」(『황현전집』 上, 358~359면)

이 시는 매천의 56세 작품으로 ‘정월 23일에 창강이 곡일에 보내준 시를 받아 화답한’ 것이다. 창강이 보내 준 시에 차운하였다. 창강은 자신의 시에서 이국에서의 외로움과 고국 벗의 부재에 대한 쓸쓸함을 그렸다면,

매천은 벗인 창강의 글재주에 자부심을 더하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실었다. 창강의 시에서는 수련에서 두류산을 언급하여 벗의 고향과 고국의 의미를 드러냈다. 반면 매천은 몇 그루 매화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수련 상구에서 ‘濯足’이라 하여 어지러운 세상에 벼슬을 뒤로 하고 추구하는 바를 좇아 들어간 창강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어두운 고국 사정에 언제나 근심하고 있을 벗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 그래도 한 문학의 진수를 드러내며 인정받고 있을 벗을 자랑스러워하였다. 따라서 ‘揚帆南斗耀文星’이라 하며 창강의 글재주를 높이 찬양한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중국 내 많은 명사들과 만나서 교유의 폭을 넓히고 있을 벗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매천의 그리움 속에는 벗에 대한 동경과 믿음이 담겨있다. ‘刺調’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명함을 내어 면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매천은 ‘袖盈吳越才人刺’라 하여 창강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감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써 문장보국을 이루고 기량을 드날릴 것을 기원한 것이다. 이를 ‘筆洗江淮戰地腥’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강이 ‘匣域鯨鯢氣正腥’이라 한 것에 대한 화답이요, 위안일 것이다. 또한 벗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창강은 자신의 시를 통해 본인의 마음가짐과 어려움, 고뇌를 실어 벗인 매천에게 보냈다. 이에 매천은 벗인 창강의 능력과 활동을 동경하며 위로하였다. 이러한 점은 매천의 시 세 번째 수에 “이런 사이에 문득 천추의 일이 족하니, 회수의 구름에 먹을 뿌리면 마땅히 그 말이 오래가리라(此間便足千秋事 灑墨淮雲當壽言).”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천은 수련에서 경련까지 벗인 창강의 상황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음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미련에서 그런 벗의 부재를 통한 쓸쓸함, 그리고 당대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반해 창강은 수련에서 경련까지 자신의 상황을 그렸고, 미련에서 지식인의 깊은 고뇌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둔 이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결같이 당대 삶의 지표에 대하여 고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벗에 대한 추억과 추모

늘 만나지는 못해도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나누었던 벗 사이에 바다를 사이에 둔 이별은 아쉬움과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다. 때로는 진한 그리움으로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되새겼다. 이들에게 있어 벗에 대한 추억은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진정한 의미를 반추할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면서 극복해야 했던 과제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시대적 대응양상의 저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속에는 시대의 삶과 고뇌가 침잠되어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인간적인 면모와 문학인의 처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두 사람간의 교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兩口妻兒一束書	두 식구 아내 자식과 한 묶음 책으로
天涯遙訪季鷹居	하늘가에 멀리 계옹이 사는 곳을 찾아갔네.
停舟笑舉鱸魚網	배를 멈추고 웃으면서 농어 그물을 드니
楓晚吳淞夜火疎	단풍나무 늦은 오송강에 밤불이 듬성하네.

說到中州也杳然	중주를 말하면 아득하기만 하니
夢中那得見山川	꿈속인들 어떻게 산천을 볼 수 있을까.
聞君手弄淮心月	들으니 그대가 손으로 회수가운데 달을 희롱한다 하니
萬里萍蓬不足憐	만리 밖 부평초 죽히 가련히 할 것이 없네.

황현, 「寄滄江」(『황현전집』 上, 328면)

이 시는 창강이 떠나고 난 후 그에게 보낸 매천의 작품이다. 벗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미와 당시 상황을 그리고 있다. 벗이 고국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매천에게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벗의 출발을 되새겼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매천이 벗을 추억한 방식은 설렘과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벗

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수에서는 창강의 망명을 중국 晋代 張翰의 고사에 비유하고 있다. 장한의 자가 季鷹이다. 계응은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를 빌미삼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택했던 인물이다. 이는 난세에 자신의 처할 바를 강직하게 보여준 대응이었다. 여기서 매천은 창강의 망명을 그에 비하고 있다. 즉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전통 학문에 대한 흔들림은 당대 지식인의 입장에서 강한 위기의식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매천은 계응에 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시 잔주에 ‘滄江依張翰林季直故云’이라 하여 창강이 중국의 장계직에게 의지하였던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묶음의 책을 지닌 채 떠났던 창강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좇은 것도 아닌 오로지 학문의 무게를 실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망망한 하늘 끝과도 같은 이국땅으로의 발을 내딛은 창강의 용기를 높이 사고 있다. 여기에는 매천 자신은 실행할 수 없었던 중국행에 대한 아쉬움이 실려 있다. 따라서 한없이 편안하고 낭만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중국에서의 삶을 예측하고 있다. 가을날 중국으로 향했던 창강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즉 吳淞은 중국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 1898년 무역항으로 발전한 곳이다. 그 오송의 강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내에서 창강의 삶을 사실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창강이 감당해야 했던 이국땅에서의 어려움은 그저 창강의 몫이었고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에서는 이국땅에서 느낄 창강의 심정과 그곳에서의 소식에 대하여 그리고 있다. 매천이 비록 중국에서 겪을 창강의 세부적인 일들은 잘 몰랐을지라도 고국을 떠나서 느끼게 될 심정을 짐작하고 있다. 또한 이는 두 사람간의 공간적인 간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창강이 느낄 외로움은 곧 매천이 감수해야 할 허전함과 일치한 것이다.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교차시키고 있다. 그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강의 소식을 통해 그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높이고 있다. 이를 ‘聞君手弄淮心月’이라 하여 뛰어난 벗의 작품 세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매천

이 추억한 창강의 모습은 벗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萍蓬’이라 하여 ‘萍水相逢’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부평초가 물에서 서로 만난다는 뜻이니, 이국땅에 안착하여 자기 기량을 펼치고 있을 벗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다. 그 내부에는 벗에 대한 염려가 내포되었지만,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결국에 ‘萬里萍蓬不足憐’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벗에 대한 추억 속에는 그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매천은 이미 “신기로운 송산에 상서로운 새가 있으니, 깃털이 오색을 갖추었네(神崧有祥禽 毛羽具五色).”³⁰⁾라고 하면서 창강을 회고했던 것과 일치한다. 다음 작품은 매천과 창강의 진솔한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이다.

我夢昨夜隨飛龍
枕上栩栩海遡江
鼓浪直入南通州
石尤颺母紛迎降
翰墨林開人影頽
延津依舊蜿蜒雙
鄉井東望不可思
有似火宅千杵撞
子幸高蹈能脫網
今此棲泊猶浮艫
有書有眼天因子
黶黷兀兀晨褰窗
宗文弄墨將繼杜
靈照挈籃能助龐
卽此可以忘憂耳
何勞史筆替人扛
不如棄置塵寰事
力躡八仙窮遺甍

나의 꿈에 어젯밤 나는 용을 따라
베개 위에서 허연히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네.
물결을 치고 곧바로 남통주에 들어가니
거친 파랑이 어지럽게 맞아서 내렸네.
한묵의 숲이 열리고 사람 그림자 험걸차고
연진에는 옛날과 같이 쌍룡이 꿈틀댔네.
동쪽 고향 바라볼 생각조차 못했으니
화택의 일천 방아를 찧는 것 같았네.
그대는 다행히 높이 떠나 능히 그물을 벗어났으니
지금 이렇게 깃들여 정박함이 뜬 배와 같네.
글도 읽고 안목도 있으니 하늘이 그대를 괴롭혀도
구름 낀 책상에 새벽 창을 걷어 올리네.
종문이 먹을 희롱하여 장차 두보를 이을 것이고
영조가 바구니 들고 방운을 돕네.
바로 이것이 가히 걱정을 잊을 만도 하건만
어찌 남을 대신해 사필을 드는 건가.
진세 세상일을 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리니
힘써 팔선을 따라 남은 발자취를 궁구하게.

30) 황현, 「歲暮懷人著作金滄江澤榮」, 『황현전집』 上, 235면.

丹成勿許鷄犬嘗	단약이 이루어지면 닭과 개가 맛보기를 허락지 말고
餘瀝貽我消膨臃	남은 것을 나에게 주어 팽창한 창자를 소화시키게 해 주소.
集君游淮以後作	그대 회수에 놀러 간 이후의 작품을 모아 가지고
坐令東國歌新腔	곧 동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곡을 노래 부르게 하리라.
間附拙詩爲驥蠅	간간히 내 시를 붙여 기마에 탄 파리가 되니
不愧土壁施金缸	흙벽에 금항을 댄 것과 다름없네.
覺來人事墮虛妄	깨고 나니, 사람 일이 허망하기만 하니
曉燈愁殺青幢幢	새벽 등불 푸르게 일렁임이 수심스럽네.

황현, 「又和滄江寄季方之作」(『황현전집』 上, 359면)

이 시는 매천이 56세에 쓴 것으로 庚戌年의 작품이다. 내용별로 보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1구에서 8구까지로 꿈속의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9구에서 16구로 창강의 망명선택과 편안한 가정생활을 그리고 있다. 17구에서 24구는 창강의 필력을 드러내며 작품세계를 공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구, 26구는 꿈에서 깨고 나서 느끼는 허망함과 쓸쓸함을 그리고 있다. 즉 매천은 시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그리고 있다. 꿈속에서 만났던 벗과 이국의 모습, 그리고 벗의 오순 도순한 가정생활, 또한 벗의 활기찬 문필 활동 등을 그린 것이다. 이를 통해 벗에 대한 추억을 곱씹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쓸쓸함을 절실하게 그려냈다. 이는 벗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실어서 보낸 한편의 이야기 구조를 이루었다. 특히 마지막 절구 두 구절은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매천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수심에 찬 세계를 그리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시공간을 초월한 꿈속의 세계이다. 즉 매천의 기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꿈에 나는 용을 타고 거침없이 바다를 거슬러 오르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시에 있어 속도감을 주고 있다. 특히 1, 2구는 마지막 절구의 25, 26구로 연결되는 꿈속의 진입과 꿈에서 깨어났을 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고 싶은 벗을 찾아 꿈속에서 힘차게 내달은 것이다. 벗이 머물고 있는 그리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

인다. 그곳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본 고국의 모습은 마치 불난 집에서 다듬이질하는 듯 보였다고 그리고 있다. 꿈속에서 조차 고국의 모습은 번뇌가 많은 세상으로 불난 집에 비유되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락은 꿈속에 벼를 찾아 들어가는 매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또한 직접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풀어내고 있다. 매천 자신이 꿈속에서나마 공간이동을 통해 벼의 거처로 찾아 들어가 함께 하고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의 기억 속에 항상 잔존해 있는 벼에 대한 추종이라고 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창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불난 집에서 다행히 창강은 멀리 떠나 그 그물을 벗어났다고 하였다. 이를 ‘子幸高蹈能脫網’이라 하여 창강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벼에 대한 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靄隸兀兀晨褰窗’이라 하여 출중한 능력에 비하여 고달프게 생활하고 있는 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다. 그러면서도 창강 가정의 안정된 삶에 안도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창강의 진면목을 그리고 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작품 생산과 그로 인한 기쁨을 함께 하고픈 친우의 바람을 담고 있다. 속세의 복잡하고 작은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약이 완성되면 아무나 맛보게 하지 말고, 매천 자신에게도 일부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가 창작한 작품을 단약에 비유한 것이다. 두 사람간의 돈독한 우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천이 벼에게 보내는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벼의 작품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성과로 고국에 보내지길 바라는 마음을 실었다. 간혹 매천의 시에 차운하였던 바를 ‘間附拙詩爲驥蠅’이라 하여 달리는 말을 탄 파리에 비유하였다. 매천의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창강인 벼를 높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간의 이러한 시적 교류에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이를 ‘不愧土壁施金缸’이라 하여 흙벽에 금항을 댄 것에 비유하여 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작품 초반부분 꿈속에서 벗어나서 잠에서 깨어난 후 느

껴지는 허망함이 실려 있다. 사람의 일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꿈속에서 반갑게 누렸던 벗과의 만남도 일순 깨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더 깊은 그리움 속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잠시 누렸던 기쁨은 다시 현실세계의 어둠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벗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속에서도 벗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다.³¹⁾ 즉 매천의 벗에 대한 추억은 미래지향적이다. 때문에 창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통이 있었던 것이다.

詞垣誰復是真才	사원의 글 짓는 자리에 누가 다시 참다운 인재나
璧月無光斗柄摧	달은 빛이 없고 북두자루도 꺾였네.
知否賞音人獨在	음을 알아보는 사람 홀로 남은 줄 아는가 모르는가.
靑楓江畔望魂來	푸른 단풍 강가에서 혼이라도 오기를 바라네.

茅家處士鼠年哀	초가집 처사 子年이 슬프고
曾乞荊川染筆來	일찍이 형천에서 붓을 적셔 오기를 청했네.
今日文成君不見	오늘 글이 이루어졌는데 그대는 보이지 아니하니
秋風吹死硯山苔	가을바람이 불어 연산의 이끼를 죽게 하였네.

김택영, 「聞黃梅泉殉信作」 4首 中 2, 3首(『김택영전집』 1, 295~296면)

이 시는 매천의 순절 소식을 듣고 지은 창강의 작품이다. 모두 4수인데 1수와 4수는 매천의 순절과 그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1수에서는 매천이 독주를 마시고 순절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 전에 계획한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다. 또한 4수에서는 그토록 중국행에 대하여 묻더니, 이내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느냐는 슬픔을 토해냈다.³²⁾

여기서는 먼저 4수의 작품 중에서 매천의 면모를 곡진하게 추모한 두

31) 이외에도 매천은 己酉年 除夜에 「除夜憶滄江」(『황현전집』 上, 356~357면)을 통해서 “시 짓거든 부디 기러기 편에 보내 주고 진한이 점묵 같다 말하지 말게(詩成幸寄歸鴻翼 莫道辰韓如點墨).”라며 창강에 대한 추억을 노래한 바 있다.

32) 황수정, 앞의 논문, 291면 참조.

번째 首의 작품을 살피고자 한다. 참다운 인재의 안타까운 스러짐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 누가 사원에서 참다운 인재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미 기운 정국에서 오로지 학문과 문장으로 시대를 대변하고자 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스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고 슬픔인 것이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개인적인 명예를 뒤로하고 칩거로 자신의 삶을 대치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죽음은 역사와 함께 하고자 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이다. 창강은 매천의 순절을 ‘璧月無光斗柄摧’라고 하여 달빛이 그 빛을 잃고 북두성이 꺾였다고 그리고 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무게는 온 천지가 어둠으로 뒤덮이면서 힘을 잃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물을 잃는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인 것이다. 또한 벗의 출중한 능력을 깊이 헤아려왔던 창강으로서 더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때문에 ‘知否賞音人獨在’라고 하면서 지음으로서 벗을 먼저 보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혼이라도 있으면 본인을 찾아오지 않겠는가하면서 푸른 단풍나무 가에서 바라본다고 그린 것이다. 매천을 미처 보내지 못하는 추모의 정이 드러나고 있다.

창강은 재차 매천의 죽음을 묻고 있다. 본인의 망명으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세월은 많은 작품으로 이루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작품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막상 함께 교류할 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애끓는 절망을 토로한 것이다. 이를 ‘今日文成君不見’이라 하여 소리 없는 울음으로 소리 내고 있다. 때문에 창강은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연산의 이끼를 죽여 버렸다고 애석해 하고 있다. 이는 안타까운 매천의 절명에 대한 추모이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정적 죽음을 동시에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창강이 매천에게 보인 추모의 정은 지음을 잃은 충격으로 인한 애끓는 절망의 분출인 것이다. 이로써 혼이라도 찾아와주길 고대하면서 망연히 마른 눈물을 시로써 토해낸 것이다.

창강은 자신의 평생 학문이었던 정통한문학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확보를 위해 중국행을 택하였다. 이는 당시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입지가 흔들렸던 한문학의 위기의식에 대한 대응법이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창강은 고국의 역사서와 많은 문집 편찬 등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매천은 고국에서 나라의 스러짐을 몸소 겪으면서 그에 대한 정서를 작품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끝내 그 대응법의 일환으로 순절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창강은 벗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되새기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는 매천 동생 석전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과의 교유를 활발하게 하여 벗의 죽음의 의미를 반추하였다. 매천의 傳을 비롯해서 像贊 등을 짓고 그의 遺詩를 정리하고 펴냈다. 이처럼 매천 사후 유작에 대한 세심한 선사와 문집편찬 그리고 배포까지 직접 관여하였다. 이는 매천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남겨진 지음의 혼신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강과 매천 지인들의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김창강과 황매천, 두 사람이 교류한 停雲의 시를 살펴보았다. 격변의 시기에 한문학의 전통을 유지하며 그 빛을 발하게 했던 두 인물의 시적 교류를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일찍이 촉망받았으나,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았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시대적인 고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부단히 찾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감을 시적 교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정감과 애환을 읽을 수 있었다. 여기서 당시 지식인들이 갈망과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강과 매천의 문학적 소통은 격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두 인물의 정신적 기저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또한 평생 지음으로서 신교의 관계를 맺는 계기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을 모두 드러낼 수 없었다. 이는 집안의 개인적인 내력이거나, 한미한 가문출신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후일을 기약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을 뿐이다. 창강은 「送黃梅泉雲卿玆遊天磨山」에서 매천과의 만남을 표현하였다. 개성으로 창강을 찾아가서 만남을 이룬 매천은 그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 친분을 나누게 된 것이다. 매천은 「與朴壺山金滄江澤榮游北漢山城」에서 북한산성 등정의 난관과 고충을 드러냈다. 매천은 그 유람을 인간의 삶에 투영하였다. 창강은 「同壺山梅泉遊北漢山城」에서 등정하게 된 원인을 드러냈다. 당시 시험관들이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함을 질타하였다. 또한 호산과 매천 두 사람이 시험에 낙방한 것을 위로하였다. 이처럼 엷매인 세상일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등정을 택한 것이다. 이들이 보여준 지식인의 정신적 기저에는 난세를 극복하고 적응해야 할 응전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은 문학에 대한 격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창강과 매천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萬里 밖 정운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창강은 격변기 속에서 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매천은 집안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별을 하였다. 비록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두 사람간의 우의는 작품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고, 서로의 활동을 멀리서 격려하였다. 당시는 새로운 학문의 대두와 시대 흐름, 그러면서 정통 한문학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는 때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당시 한문학인이 느꼈던 위기의식을 알 수 있었다. 매천은 「聞金滄江去國作」에서 창강의 결단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면서 벗의 결정이 단지 개인의 안위만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학문적, 문학적인 이상을 펼치기 위한 길이었음을 드러냈다.

매천은 벗에 대한 그리움 속에 한없는 동경을 담아냈다. 문학적 이상을 펼치기 위한 창강의 결단을 높이 산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안녕과 변화에 대한 추구를 넘어선 시대 적응능력에 대한 찬탄이기도 했다. 또한 창강은 「寄黃梅泉」, 매천은 「正月二十三日得滄江穀日見寄詩和之」라는 작품을 통해 화답하였다. 여기서 창강은 마음속에 가득 한 그리움의 공간을 풀어냈다. 그래서 현실의 공간 안에 마음속의 대상을 끌어 들여서 현실화시켰다. 이는 항상 벗을 생각했던 창강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천은 벗인 창강의 글재주를 높이 사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실었다. 즉 창강은 자신의 시를 통해 본인의 마음가짐과 어려움, 고뇌를 실어 벗인 매천에게 보냈다. 이에 매천은 벗인 창강의 능력과 활동을 기대하며 위로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이 비록 공간적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는 없었어도, 서로의 문학 활동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이국땅에서 느낄 고뇌를 위로하고 있다.

셋째, 벗에 대한 추억과 추모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김창강과 황매천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작품과 서신을 통해 교유를 나누었다. 때로는 진한 그리움으로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되새겼다. 이들에게 있어 벗에 대한 추억은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진정한 의미를 반추하였다. 지식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면서 극복해야 했던 과제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시대적 대응양상의 저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매천의 「寄滄江」을 보면, 뛰어난 벗의 작품 세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매천이 추억한 창강의 모습은 벗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 매천이 벗을 추억한 방식은 설렘과 기대로 이어졌다. 그만큼 벗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이다. 또한 「又和滄江寄季方之作」에서는 꿈속에서 그리던 벗이 있는 곳으로 날아들을 그렸다. 이는 벗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속에서도 벗과의 소통을 그린 것이다. 즉 매천의 벗에 대한 추억은 미래지향적이었다. 때문에 창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통이 있었다. 창강은 매천의 순절 소식을 듣고 「聞黃梅泉殉信作」

이라는 작품을 통해 그를 추모하였다. 애석한 죽음에 대한 통절한 슬픔과 지음을 잃은 고통이 드러난 작품이다.

지금까지 김창강과 황매천이 나눈 정운의 시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젊은 날 열정과 응전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소통과 신뢰의 기반을 쌓았다. 또한 만리 밖 정운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시대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한없는 동경과 믿음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매천이 보여준 창강에 대한 추억은 강한 기대와 격려였다. 매천 자신이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과 소통을 염원하였다. 창강은 고국의 벗이 결행한 순절에 통절한 추모를 보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교유를 통해 당시 지식인의 시대적 고충과 인간적 고뇌의 깊이를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金澤榮, 『金澤榮全集』 1·2, 아세아문화사, 1978.
- 黃 玹, 『梅泉全集』 전5권,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 , 『黃玹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崔昇孝 編著, 『文墨萃編』 上·下卷, 미래문화사, 1985.
- 陶淵明, 『陶淵明集全譯』,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2008.
- 顧 青 編撰, 『唐詩三百首』 名家集評本, 中國 中華書局, 2008.
- 곽미선, 「창강 김택영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망명 시기 한시에 나타난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165~201면.
- , 「김택영의 한시를 통해 본 망명 전후 의식세계의 변모」, 『열상고전연구』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227~260면.
-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 김동훈, 「김택영, 근대적 각성과 중국문인들의 영향」,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99~121면.
- 김정환, 「매천시과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의강, 「김택영의 중국망명 원인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22집,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2002, 71~95면.
- 尹景禧, 「황현 시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鄭載喆, 「滄江詩에 있어서의 現實感覺과 憂國詩의 性格」, 『한문학논집』 6,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8, 151~170면.
- 호광수, 「창강 김택영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2, 중국인문학회, 2006, 213~248면.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19세기 말 ~ 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고
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19 ~ 348면.
- _____, 「황매천의 중국절의지사예 대한 지향」, 『한국언어문학』 7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271 ~ 297면.

투고일 : 2011년 6월 30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Kim Changgang and Hwang Maechon's Poetry on Jeongun(停雲)

Hwang, Su-jeong

This study aims to analyse poetic exchanges between Changgang Kim Taek-young (1850 ~ 1927) and Maechon Hwang Hyun(1855 ~ 1910). That is, it looked at poetry on Jeongun(停雲). Jeongun(停雲) indicates close friends who are far away. This study focused on poetic exchanges of the two persons who were engaged in development of Chinese literature while maintaining its tradition in the period of a sudden change. They were promising literary persons because of their outstanding ability.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y did not realize as much as what they dreamed. They attempted to find out their own methods to overcome hardship of that time. Their delicate responses were expressed through poetic exchanges, through which special senses, joys and sorrow, spiritual ground, sense of crisis, and responses of the intellectuals of those days were read. This study was able to reconsider the meaning Changgang met Maechon in this process.

First, their friendship was based on literary communication and trust. Changgang and Maechon built up trust, recognizing ability of each other. They could not show their vigor and enthusiasm through national examinations because they were from families of low class. Thus, they had expectation and despair of success in life simultaneously when they were young. Therefore, their spiritual base needed ability to overcome

and respond to turbulent days. Their meeting encouraged them to pursue literature and trust, which was achieved through literary communication.

Second, their poetry expressed missing towards a friend who was far away. Changgang selected an exile during turbulent days. However, Maechon did not because of family condition. Maechon missed and longed for a close friend as he valued Changgang's decision to realize his literary ideal highly. It was an admiration for his ability to adjust the time beyond a pursuit for personal wellbeing and changes. It contains expectation of Changgang's literary ability and encouragement of him. Changgang described his missing in poems to him as he intended to be consoled by Maechon, a friend of agony and missing. The poetry both exchanged at that time had agony and missing based on turbulence of those days.

Third, his poetry expressed memories of a friend. Maechon's memories to Changgang contained the future prospect and the past reflections, through which a true meaning in their relationship was reconsidered. It also had hardship they had to face as intellectuals. The base of their response to the time was expressed. Maechon had memories of Changgang based on strong trust of his ability, leading to inspiration and expectation. Changgang expressed sorrow and pain of losing a friend, exposing his despair of the nation through the poetry.

Key-words : Kim Changgang, Hwang Maechon, communication, trust, come to China as an exile, Jeongun(停雲)